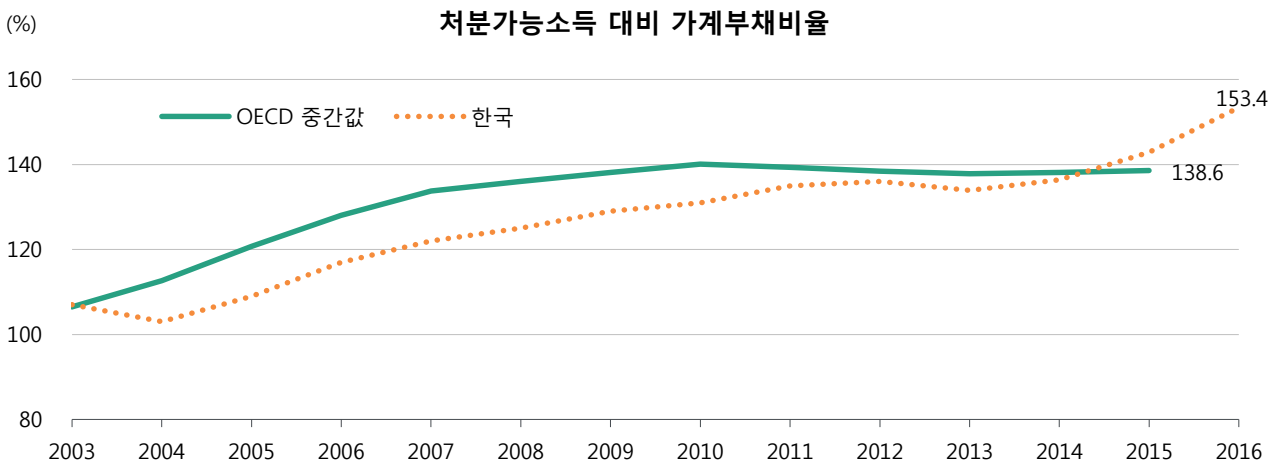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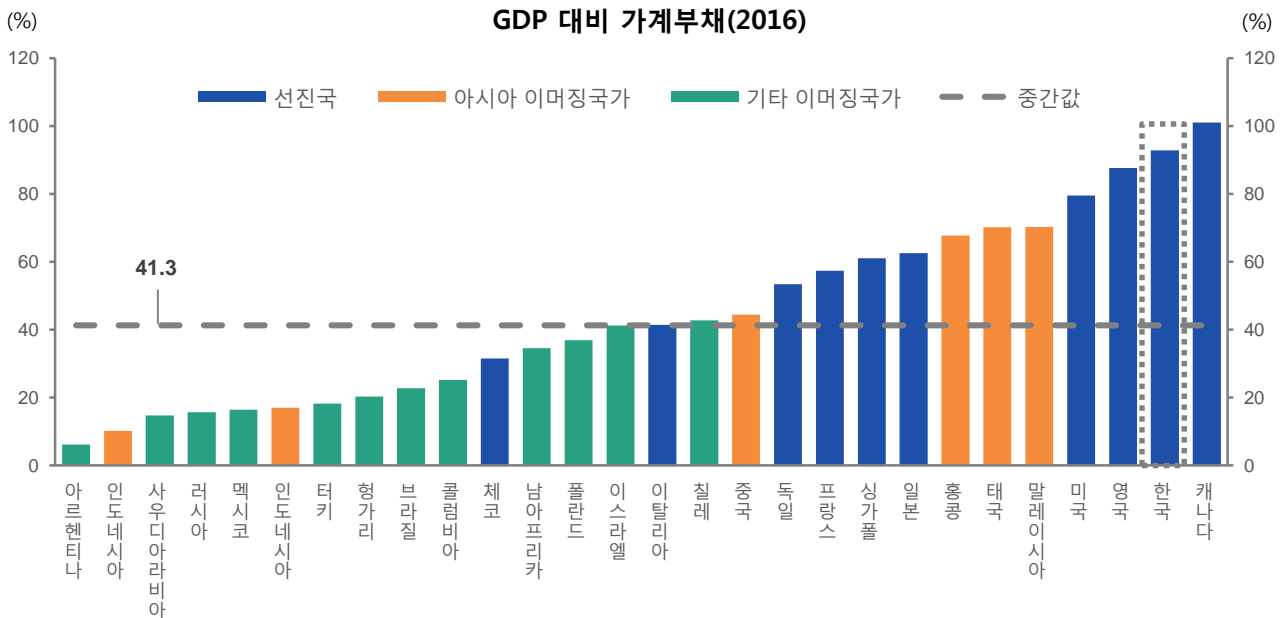


## 가계부채관련 지표: 한국 vs. 세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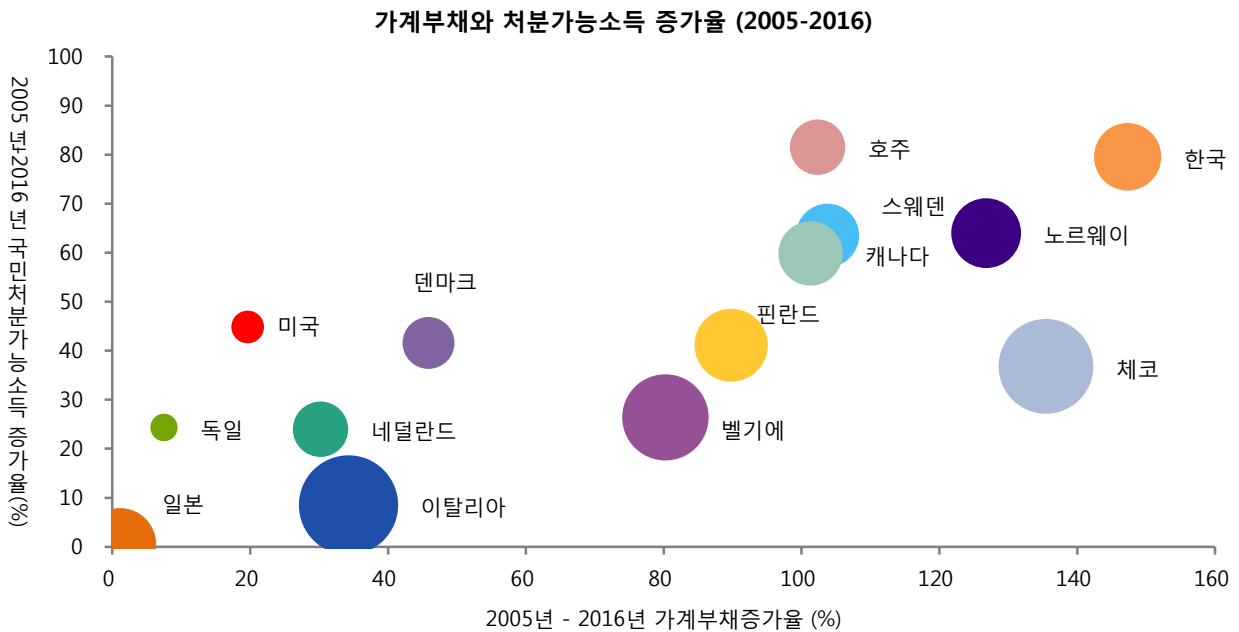


자료: OECD, 한국은행

□ 한국의 가계부채는 선진국 그룹과 비교시 매우 높은 수준임

- 2016년 말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는 92.8%로 선진국들 중 캐나다 (101.0%) 다음으로 높은 수준.
- 가계부채를 처분가능소득과 대비하여 보았을 때에도 2015년 이후 OECD 국가들의 중간값을 상회.

- OECD 국가들의 경우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7년까지 급격히 오르는 추세를 보이다가 동 비율이 높은 수준에서 안정화. 이는 금융위기 이전에 가계부채의 누적이 지속되었으나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성장이 더디어서 부채축소(deleveraging)가 어려워졌기 때문.
- 반면, 한국의 경우 동 비율이 2004년 카드사태 직후의 부채축소로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가 2005년 이후부터 꾸준히 오르는 추세. 2015년 이후에는 서울지역 부동산시장 호조와 관련하여 동 비율의 상승추세 가속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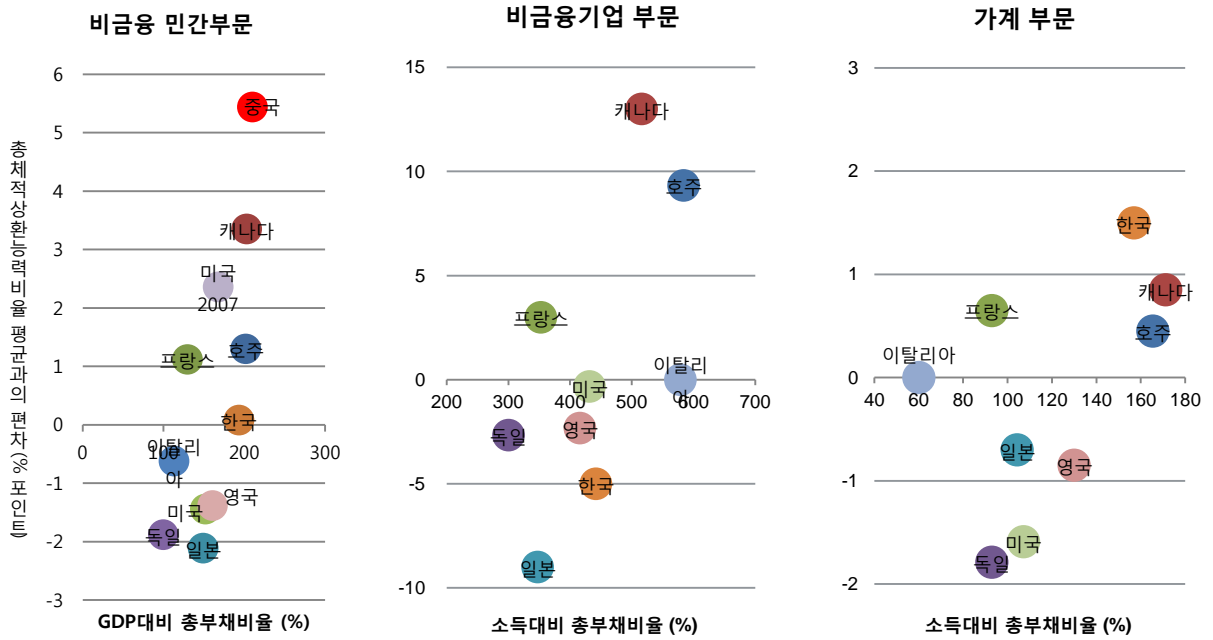


자료: 자료: OECD, 당사 재구성

주: 버블의 크기는 가계부채증가율을 가처분소득증가율로 나눈 수치. 덴마크보다 작은 경우 가계부채증가율이 국민처분가능소득증가율보다 낮고, 덴마크보다 클 경우 가계부채증가율이 국민처분가능소득증가율보다 높다.

□ 한국의 경우 동 비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이유는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처분가능소득의 증가속도보다 상당히 빠르기 때문

- 상기 그림에서 오렌지 버블이 나타내듯이 2005년과 2016년 사이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세계최고 수준인 147.3%인 반면, 같은 기간 처분가능소득의 증가율은 그 절반인 79.6%에 불과.
- 2005년과 2016년 사이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호주, 캐나다, 노르웨이, 스웨덴, 핀란드 보다 빠르며, 처분가능소득의 증가율은 호주와 비슷.



자료: IMF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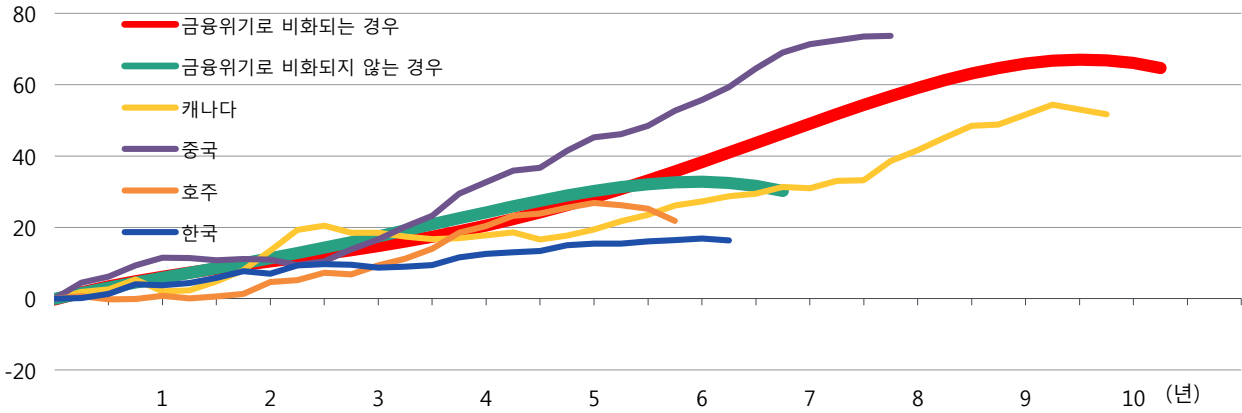
□ 한국의 가계부채를 부채상환능력 측면에서 보았을 때 G20국가들에 비해 취약.

- 국제통화기구 (IMF)는 최근 연구<sup>1</sup>에서 G20 국가들의 비금융민간부채(가계와 기업) 수준이 과거 신용팽창기에 대비하여 높고, 총채적상환능력비율 (Debt Service Ratio<sup>2</sup>) 이 G20 평균보다 높은 나라로 호주, 캐나다, 중국 및 한국을 지명.
- 그러나 한국의 경우 비금융기업부문의 부채상환능력에는 문제가 없어보이나 가계부문의 총채적상환능력비율은 G20국가들의 평균과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부채상환능력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한국의 가계가 취약함을 입증.
- 이는 금리가 오르거나 처분가능소득이 떨어질 경우에 차주들이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시사.

1 IMF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: Is Growth at Risk?, 2017.10

2 소득금액 대비 이자금액과 원금상환금액을 합한 금액

GDP 대비 비금융민간부채비율의 변화 (% points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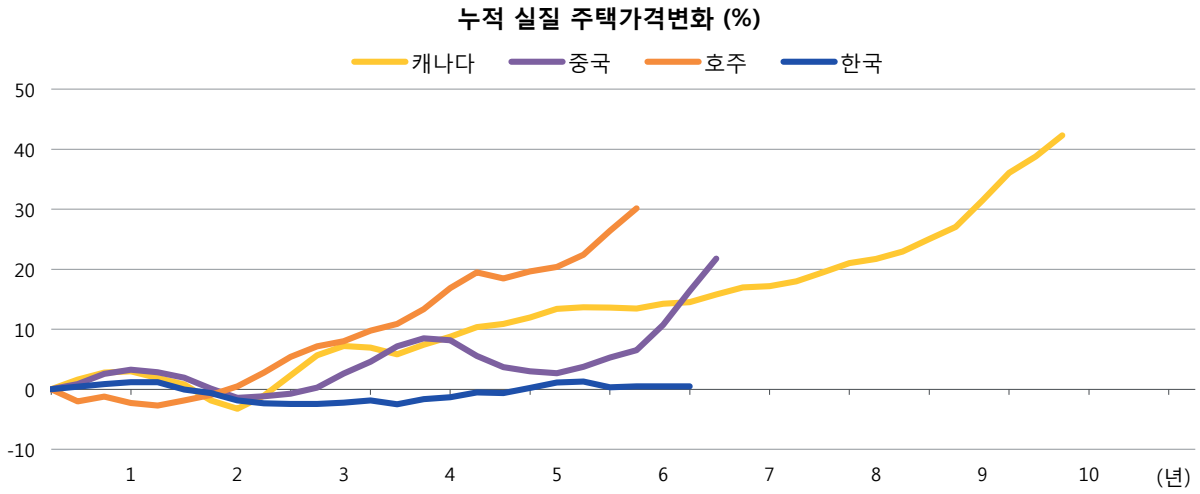


자료: IMF

주: 과거신용팽창유형의 경우 GDP신용갭이 10% 이상 올랐던 43개 선진국 및 이머징 국가들의 경우를 표본으로 이용. 신용팽창의 시작시기와 끝나는 시기는 GDP 신용갭이 6%이상이었다던 시기로서 X축의 1은 신용팽창이 시작된 시기.

□ 한국의 GDP 대비 비금융민간부채비율의 추세선은 금융위기로 비화되었던 과거 유형과는 상이

- IMF는 GDP 대비 부채비율을 그 장기추세와 비교한 GDP 대비 부채비율 Gap을 이용하여 상기 4개 국가들의 최근 신용팽창이 과거 팽창시기의 유형과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.
- 상기 그림의 빨간선은 금융위기로 비화되었던 경우의 GDP 대비 부채비율 Gap 추세선이고, 녹색선은 금융위기로 비화되지 않았던 경우의 추세선에 해당.
- 한국의 경우에는 이 두 추세선 보다 훨씬 완만한 기울기를 보이고 있어 금융위기로 비화되었던 과거 신용팽창시기의 유형과는 차별화.



자료: IMF

주: 신용팽창의 시작시기와 끝나는 시기는 GDP 신용갭이 6%이상이었던 시기로서 X축의 1은 신용팽창이 시작된 시기.

**□ 주택시장 호조가 지속될 경우 호주, 캐나다, 중국과 같이 가계부채가 누적될 가능성 주지 요망**

- 호주, 캐나다, 중국 세 나라 모두 신용팽창의 시기와 누적 실질 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시기가 일치.
- 한국의 경우 아직까지는 실질 주택가격의 상승 정도가 미미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할 경우 호주, 캐나다, 중국과 같이 부채가 누적될 가능성도 있음을 주지 필요.